

경상남도 - 홋카이도 실무 협의

지난 2월 16일-18일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김춘수 제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실무협의 차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11월, 홋카이도와 경상남도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지 5주년을 기념하여 홋카이도 방문단이 경상남도를 방문했을 때 홋카이도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17일 실무 협의에 앞서 HIECC(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 종합센터)의 다카하시(高橋) 전무를 찾아 간담을 나누었습니다. 다카하시 전무는 HIECC가 북방권과의 교류는 활발하지만 한국과는 아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한국과의 교류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김춘수 제장은 한국과의 교류에 힘쓰겠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얘기라며 양도는 물론 양국간의



HIECC 다카하시(高橋) 전무(우)를 방문한 경상남도 방문단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HIECC는 홋카이도의 북방권 구상을 기본으로 1971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홋카이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홋카이도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이어진 실무협의에서 경상남도측은 스포츠 분야와 여성관련 분야에 관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홋카이도측은 HIECC 과 연계한 스포츠 교류 사업, 특히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된 스포츠, 미니배구와 파크골프의 교류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양 도민들에게 서로의 지역을 널리 알리고, 양 지역의 소개전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홋카이도 발상의 미니배구를 고안한 전일본 미니배구협회 고지마(小島)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고지마 회장은 미니배구의 소개와 아울러 미니배구를 통한 스포츠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경상남도측에 설명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하는 경상남도 방문단과 홋카이도 국제과 직원

홋카이도에서 고안된 스포츠

「파크골프」와 「미니배구」

경상남도과 홋카이도의 실무 협의에서도 스포츠교류 분야에서 거론된 파크골프와 미니배구는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스포츠입니다. 홋카이도 도카치 지역의 마쿠베쓰초(幕別町)와 다이키초(大樹町)에서 고안된 두 스포츠는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

◆◆ 그 시작은 언제부터?

1983년 마쿠베쓰초(幕別町)의 한 공원에서 골프를 따라 한 가벼운 놀이로 시작되어 그 장소가 공원이었기에 파크를 붙여 파크골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골프보다 손쉽고 가볍게 할 수 있기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생활스포츠입니다.



◆◆ 파크골프의 특징은?

첫째, 클럽과 공 그리고 티, 이 3가지만 있으면 준비는 충분하다.
둘째, 1홀에 3에서 5의 표준타수가 설정되어 있고, 9홀 파 33이다.
셋째, 승부 지향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지향에 중점을 둔 스포츠다.

◆◆ 파크골프의 발자취

파크골프가 탄생한 지 올해로 29년째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인구는 약 124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에도 15여년 전 파크골프가 보급되어 1998년 경남 진주에 최초의 파크골프장(6홀)이 지어졌으며, 한강공원에도 정식규격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전국파크골프연합회가 출범하는 등 한국에서도 국민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파크골프를 통해 홋카이도와 한국, 일본과 한국의 전 세대가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니 배구



◆◆ 그 탄생 비화는?

미니배구는 1972년 다이키초(大樹町)에서 탄생한 스포츠입니다. 그 당시 다이키초에서는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일환으로 '어머니 배구교실'이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는 점점 감소해 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유를 알아보니 '공이 딱딱해서 무섭다', '초보자한테는 너무 어렵다' 등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불만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보통 배구보다 네트가 작고 공이 부드러운 미니배구입니다.

◆◆ 미니 배구의 특징은?

첫째, 비치볼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부드럽고 가벼운 공!
둘째, 배구 코트의 3분의 1 크기로 배드민턴 코트에서도 즐길 수 있다.
셋째, 네트의 높이는 1.55m로 키가 작아도 블러크 공격이 가능하다.
넷째, 4대4로 경기를 치르며 11점 득점 3세트이다.

◆◆ 미니배구의 발자취

올해는 미니배구가 탄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일본 전국은 물론 러시아 등의 외국에도 미니배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올해 일본도쿄 전국체전에서 시범경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난민의 장! 소통의 장!'이라는 미니배구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시모카와는 홋카이도 북부의 내륙지방에 위치하는, 마을의 90%가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39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08년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되어 '북쪽 지역의 삼림공생 저탄소 모델사회'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쓰레기를 14가지로 분류하여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64%를 자원화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도 따로 분리하여 바이오디젤연료로 사용하는 등 자원을 재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합니다.

홋카이도 내에서도 적설량이 많은 시모카와는 오래전부터 스키점프 인재를 육성해 왔는데, 올림픽 선수도 다수 배출하고 있는 스키점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용한 아이스캔들 페스티벌, 중국 만리장성 축소판으로 주민들이 직접 쌓아올린 시모카와 만리장성 등 지역의 기후와 특색을 살린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1960년대 광업이 번창하던 시기 15000명에 달하던 인구는 현재 3900명으로 줄었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앞으로도 시모카와는 삼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모델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삼림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 시모카와 (下川町)

<시모카와의 즐거운 축제의 장>

★여름에는 「우동 축제」

매년 8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먹거리 축제~ 이 축제에는 우동 빨리먹기 대회를 비롯한 시모카와의 식자재로 만든 요리대회 등이 열립니다. 저녁에는 '후루사토돈쨩'이라고 해 훈도시(씨름 살바 같은 팬티)를 입은 남성들이 가마를 이고 등장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웁니다.



우동 빨리먹기 대회

★겨울에는 「아이스 캔들 페스티벌」

혹독한 추위의 시모카와의 밤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아이스 캔들 축제는 매년 2월 중순에 개최됩니다. 축제 회장에서는 눈과 아이스 캔들로 만든 무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설상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눈 미끄럼틀도 설치됩니다. 이 축제는 2001년에 지역자원을 이용한 독창성 넘치는 축제임을 인정받아 지역활성화 센터의 '고향이벤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스캔들 결혼식



◆최고의 수타우동면과 토마토!

겨울에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1959년 효고현 타츠노시로부터 제법을 배워 와 시작된 시모카와의 수타우동면은 지금까지도 전통방식 그대로이며, 짭짤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밤년의 기온차가 크고 습기가 적은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되어 빛깔이 좋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이 시모카와에도?!

탄광산업이 쇠퇴한 이후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던 시모카와. 이대로만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관광자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중국의 만리장성을 다녀온 관광진흥위원 한 명이 마을의 농지조성을 할 때 나오는 남은 돌을 보고 '시모카와만의 만리장성'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걸 계기로 만리장성 쌓기가 주민들에 의해 1986년 시작됩니다.



시모카와 만리장성의 축성 과정

이후 시모카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홋카이도 내외에서 만리장성 애기를 듣고 찾아온 이들이 성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고, 15년만인 2000년에 만리장성이 이룩고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2000년은 시모카와가 개척된 지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의 한가지 특징은 성의 기초가 된 약 15만 개의 돌에 그 돌을 하나하나 없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맡겼다면 금새 끝났을 일을 15년간에 걸쳐만든 그 정성은 시모카와의 후세대에 남겨질 큰 선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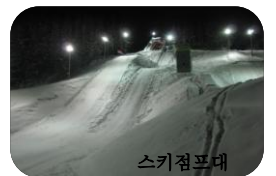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자랑스런 스키점프 선수들!

일본 내에서도 스키점프로 유명한 곳은 나가노, 삿포로, 시모카와 이렇게 3곳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모카와는 다른 2지역에 비해 평균기온이 낮고 적설량이 많아 더 긴 기간 스키점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자연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지금까지 오카베 다카노부(岡部孝信), 카사이 노리아키(葛西紀明), 이토 다이키(伊東大貴) 선수 등 5명의 올림픽 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모카와의 스키점프는 1930년대부터 신사의 계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고, 1939년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기무라(木村) 선수가 그 시초가 됩니다. 이후 점차 시설을 정비해오며 1977년에는 스키점프소년단이 결성되어 꿈나무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도내외의 스키점프 유학생들이 올림픽을 꿈꾸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귀한 탄산천이 흐르는 고미(五味)온천

시모카와 시가지로부터 약 6km 떨어진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온천 고미온천. 이곳은 시모카와 개척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1905년 고미 칸자부로(五味勘三郎)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온천의 수질은 탄산천으로 활화산이 많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귀한 온천입니다. 온천수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은 피부와 모세혈관을 자극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며, 고혈압인 사람에게도 심장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심장의 온천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키점프대



고미온천